

산란계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유통구조 개선, 자조금으로 풀 수 있다

축산관련 신문들을 보면 여러 축종들에서 자조금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된다. 양돈은 말할 것도 없이 낙농, 한우 등 타 축종은 이미 자조금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크게 일고 있어 어느때 보다 자조금 사업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조금은 우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그 중요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조금은 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자들이 일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소비홍보를 힘을 모아 할 수 있다. 생산한 제품이 아무리 우수하든 무엇하랴? 소비자가 외면하면 아무소용이 없는 것이다. 요즘 광고 매체를 보면 가지각색의 홍보로 소비자의 눈을 유혹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가지의 상품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으며 계란도 이중의 일부인 것이다. 물론 계란은 국민의 먹을거리면서 다양한 요리에 주메뉴 또는 부재료로 다채롭게 사용되면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채란업계는 국내 생산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소비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김 선 응
채란분과위원장

유통구조개선 문제도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채란업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조금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계란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9개가 증가한 202개였으며 300개에 달하는 미국, 일본 등이 비해서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국내 산란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란의 소비량이 매년 증가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계란우수성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계란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남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타 축종에서는 의무자조금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해외 축산물의 공격에 자구적 방안과 소비 홍보에 주력해 안정화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채란계 또한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비록 거출기관의 난항으로 시작이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의무자조금의 시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조금의 필요성을 우리농가부터 인식하고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소수의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대중이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농가를 위한 일로 농가 스스로가 소득의 일부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인 만큼 농가들에게 필요성을 납득이 갈 수 있게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무자조금은 우리

양계업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산란계 의무자조금의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협회를 위시하여 정부, 업계 등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년내에 의무자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지난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의무자조금만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수당 10원씩이라도 견자는 움직임이 채란인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즉, 임의자조금을 통해서라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자는 의지인 것이다. 이를 통해 거출될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정부 보조금을 합한 4억원으로 계란 홍보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채란정기가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모든 농가들이 동참하여 불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양계**